

탈놀이·퓨전국악·서커스... 지화자 목포! 좋을시고 축제!

26~28일 원도심 차 안다니는 거리 일대 세계마당페스티벌 독일·스페인 등 국내외 40여 팀 초청...콘서트·댄스 등 다채

“제23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 미마프·MIMAF)”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좋을시고 좋을시고”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미마프’는 목포에서 활동하는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이 주관하는 순수 민간 예술축제이다. 축제는 독일, 스페인 등 국내외 40여 팀이 초청돼 다양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4년 만에 개최되고, 일정을 여름철에서 5월 봄철로 옮겨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마프는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해외 초청작, 국내 초청작, 목포 로컬스토리 5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개막놀이는 ‘힘내라 목포’를 주제로 전국체전 목포 성공개최를 비롯해 관광거점 도시, 문화도시, 원

도심 경제활성화 등 지역 최대의 관심사를 대형 소원등으로 밝혀 성공을 기원한다.

이와 함께 1000여 명의 시민이 대거 참여해 댄스를 펼치고 거대 인형 육단기와 함께 시민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개막공연은 프로젝트 날다의 ‘스카이 밴드’가 공중 크레인에 올라 환상적인 연주와 노래로 밤하늘을 수놓는다.

총 40여 팀이 넘는 공연단이 초청된 미마프 축제는 탈놀이, 공중그네, 서커스, 퓨전국악, 콘서트, 인형극, 댄스 등 볼거리가 다채롭다.

해외 초청작에는 독일 리브엔도비의 공중그네, 스페인 듀크토의 아코바비 댄스,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약단 광철을 비롯해 토티에드, 타악연희원 아퀴, 연희공방 음마깡깡, 놀이패 죽자사자 등의 공연이 초청되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예향 남도 초청작에는 보성 군립국악단, 광양 버꾸놀이, 여수 김길선류 북놀이 협회, 진도 강은영명인, 영암 기예무단, 무안 심장의 소리 등 신명난 공연으로 함께한다.

킬러콘텐츠로 유명한 ‘목포 로컬스토리 5선’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목포 로컬스토리’는 목포 원도심의 특별한 공간을 선정, 여행자들에게 로컬 체험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1894년 미국 선교사 유진벨의 스토리를 제작한 ‘시인 오페라 유진벨’, 목포에 얽힌 스토리를 연극과 노래로 꾸미는 시티투어버스 ‘로맨틱 선사인’, 원도심의 상인 등이 참여해 상가 활성화 해법을 찾아보는 ‘원도심 커머스 토크박스’, 버스를 타고 목포의 이색적인 공간을 체험하는 ‘시크릿 버스’, 6주간의 스윙 댄스 워크숍을 마친 시민들의 유쾌한 공연 ‘탄스에 미쥬’ 등이 개최된다.

프린지 행사로는 원도심 아티스트들의 ‘프리마켓’, 한국의 버스킹 ‘긱’, 추첨을 통한 원도심 상인회



“제23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대회 거리퍼포먼스 모습.

의 경품 이벤트가 펼쳐진다. 행사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극단 ‘갯돌’ 관계자는 “축제가 열리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원도심 트윈스타에서부터 기업은행

구간 빛의 거리 일대가 부분 통제된다”면서 “이 구간을 지나는 일부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보조금 논란 단체에 예산 더 퍼준 진도군의의회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 집행 과정서 지방보조금 유용 의혹 군의의회, 올 추경서 예산 증액...군, 전액 삭감 요구·감사 진행

진도군의의회가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단체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진도군은 해당 단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군의회에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진도군의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288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도군 축구협회의 유소년 축구대회 보조금 8000만원을 포함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진도군은 대회 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지만, 군의회는 전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이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 군의원이 예산 증액 의견을 펴면서 보조금 증액이 결정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의회 예산 심의장에서 군의원들에게 해당 단체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면서도 보조금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예산을 심의한 또 다른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단체 예산 증액에 대한 의원들 간 논쟁이 심했다”며 “한 의원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밀어붙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도의 한 주민(65)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혈세로 꾸러졌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군의원의 삼진탕처럼 예산이 쓰이니 화가 난다. 무능한 군의원은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군은 진도군 축구협회에 개최비 8000만원이 든 ‘2022년 진도군 축구협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13조, 15조를 위반한 점을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 갯벌 제철 낙지 맛보러 오세요”

압해도 분재정원 26~27일 섬 낙지축제



“신안 청정 갯벌에서 난 낙지 맛보러 오세요.” 신안군은 압해도 분재정원에서 26~27일 이틀간 ‘섬 낙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4년 만에 개최된다.

신안군 갯벌낙지 맨손어업(사진)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2018년 11월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갯벌에 사는 낙지의 습성과 생태를 연구해 맨손으로 더 쉽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신안에는 낙지잡이 조업 어선(5t 미만) 3381척이 운행하고 있으며, 맨손어업에는 91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만3837점을 잡아 연간 79억원의 위판액을 올리고 있다.

신안군은 뽕낙지 맨손어업 명성을 널리 알리고자 주요 생산지인 압해도에서 축제를 마련했다.

낙지는 원기 회복과 피로 해소, 빈혈 예방, 심혈관질환 예방, 간 기능 개선, 치매 예방, 피부 미용, 다이어트 등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낙지축제는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를 소재로 개최된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 등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5월 홍어 강다리 낙지축제를 시작으로, 6월 병어 간제미, 8월 민어, 9월 불블락 왕새우 우럭, 11월 새우젓 등 가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어종의 제철에 맞춰 지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약산 동백숲에서 초록으로 심신 치유

피톤치드 발산량 내륙보다 3배 면역력 등 강화...발산량 8월 최대

“완도 약산 동백숲으로 산림 치유하러 오세요. 8월이 가장 좋아요.”

약산 동백숲 피톤치드 발산량이 내륙지역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발산량이 가장 높았다.

약산 동백숲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산림이 복합된 약산 해안 치유의 숲으로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피톤치드 발산량이 높은 곳이라고 완도군은 설명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조사(2019년도)한 도내 주산림 공기질을 보면 약산 동백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이 내륙지역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톤치드(phytoncide)란 공기를 맑게 하고 살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NK 세포 활동을 촉진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절별로는 여름인 8월에 피톤치드 발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암, 항산화, 면역력 강화, 살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피넨과 향균, 항산화, 심신 안정에 유익하다는 베타피넨은 내륙지역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톤치드 발산량이 높은 이유는 동백, 참가시, 구실잣밤, 붉가시나무 등의 난대수종을 넉넉히 품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공기질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톤치드 발생량이 내륙보다 3배 높다고 조사된 완도 약산 동백숲.

산림자원 탐사단을 꾸려 약산에서 자생하는 희귀·특산 식물과 유용 산림자원 조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물자원 보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피톤치드 발생량이 높은 약산 동백 숲이 있는 해안 치유의 숲을 방문하면 숲길 걷기, 명상, 해수욕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목포수산물지원센터, 식품시험검사기관 재지정

목포시는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광주시 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26년 5월까지 3년간 식품검사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기관을 지정해 제조·가공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시험 검사를 하는 곳이다. 목포수산물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현재까지 식품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815건 시료에 대해 1871건이 넘는 검사 항목을 분석했다.

또 기업의 품질규격 및 품질관리, 성분분석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 업체들이 개발한 신제품의 위

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다.

목포수산물지원센터는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또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국립공과대학 식품연구소와 북유럽 해조류 컨버넌스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산물식품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식품시험검사기관 재지정된 목포수산물지원센터는 앞으로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중금속 등 이 화학분야 38개 항목과 대장균 등 미생물분야 32개 항목의 총 70개 항목을 검사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산림자원 관리기관 지정

해남 포레스트(4est)수목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내의 산림생명자원의 보전과 관리, 이용을 위해 조사·수집·증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국·공·사립수목원 중 식물의 보존현황, 전문인력 수준, 표본 보유현황 등을 평가해 지정하며 포레스트수목원은 대표종인 수국을 포함, 식물자원이 100점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포레스트 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씨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숲을 따라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있다.

2019년 해남 최초 민간 사립수목원으로 등록했으며,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경원들이 다채롭게 조성돼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 벼농가 이달까지 재배면적 감축 신청

타작물 재배·휴경 계획 농지...논콩 물량 전량 매입 등 혜택

진도군이 쌀 가격하락과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

한 농지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계획이 있는 농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ha당 공공비축미 300포 추가배정, 논콩 재배농가는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논농사 농지에 올해 하계 가루쌀, 콩, 동계 밀,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 시 전작작물 직불금이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작작물 직불금 품목에서 제외되는 조, 수수 등의 타작물 재배 시에도 ha당 200만원의 지급한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